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지도

류동춘*

目 录

1. 들어가기
2. 의미지도
3.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
4.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지도
5. 나오기

1. 들어가기

중국어의 역사에서 볼 때, ‘以’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난 어휘이며, 고대중국어에서는 다양한 의미와 품사로 쓰인 어휘이다. 갑골문과 금문 속의 ‘以’의 의미에 대하여 《甲骨金文字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갑골문과 금문의 以는 쟁기(耜)의 象形字이다. 즉 耜의 本字이며, 《說文》의 以字 篆文의 근거가 된다. 以는 用具이므로 卜辭에서는 以字로 가차되었다. 또 갑골문과 금문의 以는 사람이 쟁기(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뜬 것이며, 篆文은 이 자형에서 나왔다. 말기 금문에서는 간혹 口이나 心을 보태서 辨방을 추가했다.¹⁾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교수

1) 《甲骨金文字典》(1178-1180): “甲金文以爲耜之象形字, 卽耜之本字, 爲《說文》以字篆文所本。以爲用具, 故卜辭借爲以字。又甲金文以象人用耜形, 篆文以從此出。晚期金文或增從口, 或增從心。”

《甲骨金文字典》에서 자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모두 13개의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 1) 用, 率領。甲辰貞畢呂衆朕伐旨方受又。(粹224)
- 2) 及。大風自北呂。(佚388)
- 3) 祭名 辛巳貞呂伊示。(存2.766)
- 4) 通輿。連詞。今我佳命汝二人允眾矢爽左右于乃寮呂乃友事。(矢方彝)
- 5) 連詞。連接兩動詞或兩名詞。呂征呂行。(曾伯簠)
- 6) 表示時間,方位,數量的界限。自濇涉呂南至于大沽。(散盤)
- 7) 使, 給予。萬年呂厥孫子寶用。(封簋)
- 8) 是呂, 所以, 因此。丕顯子白, 壯武子戎工, 經雙四方, 搏伐玁狁于洛之陽, 折首五百, 執訊五十, 是呂先行。(虢季子白盤)
- 9) 通予。我。
- 10) 通已。已經, 完畢。
- 11) 用作后。皇帝的正妻。
- 12) 介詞。義如藉此, 其賓語可承上省略。已擇其吉金以作鑄缶以祭我皇祖。(欒書缶)
- 13) 通熙, 人名, 卽魯揚公熙。

보통 사전에서 제시하는 의미와 용법들은 서로 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개 本義, 派生, 假借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에 제시한 항목들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선 이 항목들을 品詞에 따라 나누어 보면 1), 2), 3), 7)은 動詞로 쓰인 것이고; 4), 5)는 連詞로 쓰인 것이며; 8), 12)는 介詞로 쓰인 것이다. 또 9), 10), 13)은 각각 代詞, 副詞, 名詞로 쓰였지만 同音關係에 따라 假借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11)은 본의나 파생과도 관련이 없고, 가차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본고에서는 《甲骨金文字典》에 제시된 의미와 용법 가운데 가차된 것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動詞, 連詞, 介詞로 쓰인 의미와 용법 그리고 제시된 것 이외의 羅端(2009)등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甲骨文과 金文에 보이는 ‘以’의 의미와 용법을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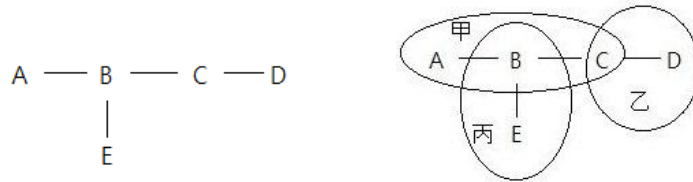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연구방법으로 개념공간(conceptual space)과 의미지도모델(semantic map model)을 적용하여 위에서 연구대상으로 획정한 갑골문과 금문에 나타나는 '以'의 의미와 용법 가운데 '도구와 관련된' 항목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의미지도를 작성할 것이다. 이런 시도는 장차 '以'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이 어떻게 출현하고 또 각 의미와 용법간의 선후관계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데 기초적인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의미지도

의미지도 모형(semantic map model)은 최근 유형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나의 언어에서 어떤 하나의 언어형식(허사나 구문)이 여러 가지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미나 기능이 다른 여러 언어에서도 하나의 언어형식으로 구현된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현상으로서 인류 언어의 보편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나의 언어형식이 나타내는 의미나 기능을 연결한 것이 개념공간(conceptual space)이고, 구체적인 한 언어의 개념공간 상의 분포가 의미지도(semantic map)이다. 예를 들어 甲 언어에서 하나의 언어형식이 A, B, C라는 의미나 용법을 가지고, 乙 언어에서는 C, D라는 의미나 용법을 가지며, 丙 언어에서는 B, E라는 의미나 용법을 가진다면 [그림1]과 같은 개념공간을 그릴 수 있다. 이 개념공간 상에 개별 언어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2]가 바로 의미지도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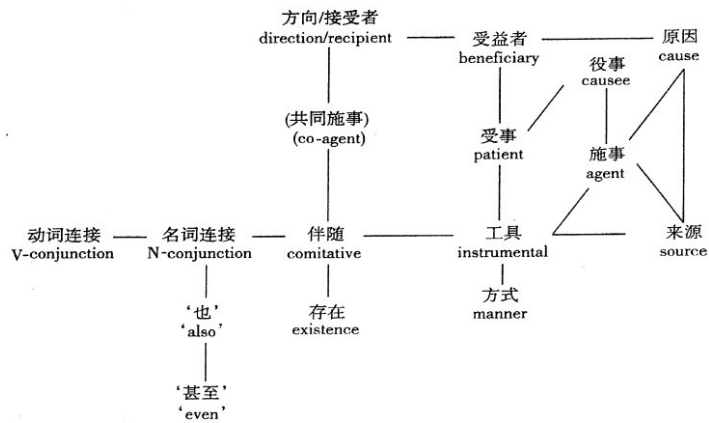
우리가 갑골문과 금문 자료에서 추출한 '以'의 '도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도 여러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구축된 개념공간에 배열한다면 각 항목간의 연관관계와 출현순서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2) 백은희(2013:99-100).



2.1 ‘도구와 관련된’ 개념공간

潘秋平、王毓淑(2011:11)은 Haspelmath(2003)의 도구와 관련된 개념공간과 Haspelmath(2004)의 접속사와 관련된 개념공간, 그리고 張敏(2008)의 處置와 被動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공간을 종합하고 연계시켜서 아래와 같은 ‘도구와 관련된’ 개념공간을 획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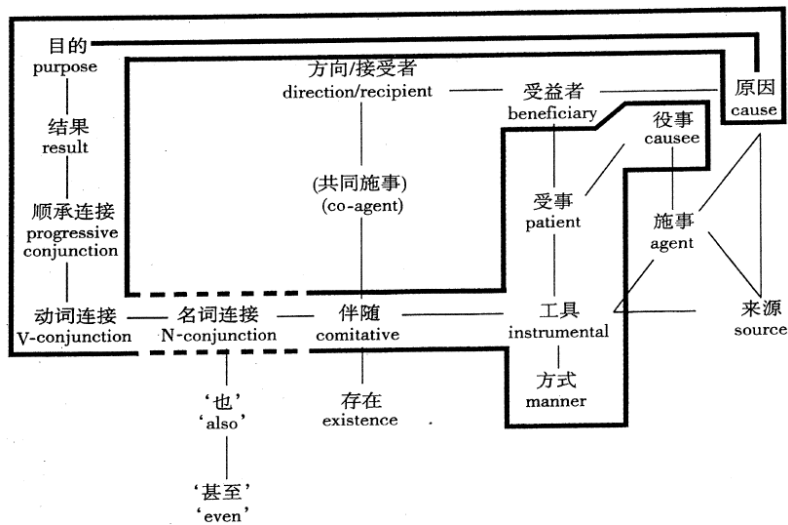
원래 위의 여러 연구에서 종합한 개념공간에는 ‘處置’와 ‘使役’이 존재했지만, ‘처치’와 ‘사역’은 의미개념이 아니므로 潘秋平、王毓淑(2011:11)에서는 각각 ‘受事’와 ‘役事’로 수정하였다. 潘秋平、王毓淑(2011:12-13)은 이렇게 수

정함으로써 Naess(2007:97)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 ‘施事’, ‘道具’ 그리고 ‘受事’간의 밀접한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Agent ----- Instrument ----- Patient
 “thing making the event happen” “things the Agent does something to”

2.2 潘秋平、王毓淑가 그린 《左傳》속 ‘以’의 의미지도

위의 개념지도를 바탕으로 潘秋平、王毓淑(2011:42)은 《左傳》속에 출현하는 ‘以’의 의미지도를 아래와 같이 그렸다.³⁾



3) 潘秋平、王毓淑(2011:25)은 상고중국어에는 ‘以’ 확실히 명사접속(名詞連接) 기능이 있었지만 후에 ‘전치사빈어 전치’와 ‘생략문’등 때문에 동사접속(動詞連接)이 출현함에 따라 이 기능 소실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의미지도에서 이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左傳》의 의미지도를 참고하여 이 보다 이른 갑골문과 금문의 의미지도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以’의 의미와 용법의 확장과정을 규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출현 과정이 과연 언어 보편성과 부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지도는 공시적 언어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한 언어형식의 시기별 의미 지도를 통시적으로 배열하면 그 언어형식의 변화궤적을 그려낼 수 있어서 통시적 언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는 共時的인 것이 아니다. 즉 甲骨文과 金文은 모두 출토 자료로서 그 시기와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있으며 용도 또한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원시중국어에서 ‘以’의 각가지 의미와 용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갑골문, 서주초기 금문, 서주중기 금문, 서주후기 금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기를 한 평면에 그려 의미와 용법의 파생 순서를 보일 것이다.

3. 甲金文 속에 보이는 ‘以’의 의미항목

3.1 字形과 本義

甲骨文 속에 보이는 ‘以’의 자형은 크게 𠄎와 𠄏 두 부류가 있는데, 金祥恒(1962)은 𠄏가 ‘以’의 本字이고, 𠄎는 𠄏의 생략형이라고 보았는데,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두 부류의 자형을 모두 ‘以’로 隸定한다. ‘以’의 字形 구조와 本義에 대하여 기존의 解釋은 아래와 같다:

孫詒讓은 ‘似’로 풀이하고 ‘以’로 읽었으며, 뜻은 ‘用’으로 보았다.⁵⁾

郭沫若是 《說文》의 “挈, 懸持也”구절의 ‘挈’의 初字로 풀이하였다.⁶⁾

4) 《中國文字》 第2卷 釋呂

5) 《契文舉例》 下33

唐蘭과 于省吾는 '氏'(氏)로 풀이하고, '提', '致'의 뜻으로 해석하였다.⁷⁾

王貴民(1983:56-59)은 呂가 '耜'의 偏旁이며, 形符가 아니라 聲符로 보았다.

甲骨文字典(1988:1592-1593)은 徐中舒의 <耒耜考> 說明에 따라 “甲骨文 呂는 𠄎 𠄎로 썼는데 耜의 象形字로서 바로 耜의 本字이다. 金文은 𠄎 𠄎로 썼으며 <說文> 篆文의 근거가 된다. 呂는 用具이므로 卜辭에서는 以字로 가차하여 쓰였다. 또 甲骨文의 卜, 𠄎는 사람이 耜를 사용하는 모습인데, 金文에서는 잘못 변해서 𠄎 𠄎이 되었고, 篆文의 𠄎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說文>에서는 ‘呂, 用也. 字形은 已를 반대로 쓴 것을 취해서 만들었다. 가시 중이 말하길: 已는 생각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표시한다. 상형자이다.’라 하였다.”⁸⁾

裘錫圭(1992:106~107, 110)는 이 글자가 “사람이 손으로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며, 本義는 아마도 ‘攜帶’、‘帶領’같은 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다른 뜻(예를 들면 ‘致送’등)은 모두 이 本義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라 하였다.

郭錫良(1998:1)은 “以의 本義는 마땅히 ‘提携’、‘攜帶’이며, 具體적인 ‘提携’의 뜻으로 쓰인 例證은 卜辭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抽象적인 ‘攜帶’‘帶領’의 뜻으로 쓰인 用例는 아주 많다.”고 하였다.

陳年福(2002:72-73)는 이 글자가 “從人, 呂聲”의 形聲字라고 보았으며, 그 의미는 ‘給予, 奉贈’인 것 같은데, 이는 ‘以’의 古本義의 잔재이며, 이 점이 바로 以字의 本義가 ‘送物給人’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보았다.

何金松(2004:167)은 ‘卜, 人 呂로 구성된 글자이며, 여기의 呂자는 已로도 쓰며 胎자의 象形初文이라’고 하였다. 이어 ‘태아가 모체에서 발육하는데 유전적인 작용에 의하여 출생 후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모습이 대부분 부모

6) 《甲骨文字研究》上冊 釋掣

7) 《天壤閣甲骨文存考釋》26葉, 《殷契駢枝》59葉 釋氏

8) 《說文》卷14: “呂, 用也. 從反已, 賈侍中說. 已意已實也. 象形.”

와 흡사하고 성격도 비슷하게 되므로, ‘以’자의 본의가 ‘서로 닮았다’이며 ‘似’의 본자이다’라 하였다.

羅端(2009)은 ‘以’의 기본적인 동사 의미는 ‘引導’、‘率領’이며, 西周晚期 金文에서야 비로서 移動을 포함하지 않는 ‘帶着’、‘拿’같은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위에 제시한 기존의 견해를 우선 자형과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자형에 대한 풀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耜자의 편방처럼 쟁기와 같은 도구로 보는 견해, 체내의 胚胎 모습을 그렸다는 견해, 그리고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견해이다. 우선 배태의 모습이라는 설은 孫詒讓이 似로 풀이한데서 시작되었고, 何金松이 이를 더 확대하여 ‘似’자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풀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 설은 갑골문자형 𠄎이 사람에게 달린 배태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성이 없으며, ‘似’의 풀이가 일부분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以’의 다양한 의미가 모두 배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 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𠄎를 쟁기로 풀이하는 것은 𠄎에서 손으로 들고 있는 형태를 설명하기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𠄎를 쟁기로 한정하지 않고 어떤 도구를 나타낸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𠄎를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구들 들고 있는 모습’으로는 갑골문과 금문에 나타나는 ‘보내다’는 의미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골문 자형 𠄎를 ‘사람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풀이라고 생각된다.

‘以’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의 풀이가 각자의 자형풀이에 따라, ‘들다’ ‘주다’ ‘보내다’ ‘쓰다’ ‘유사하다’로 보고 있다. 이 풀이들은 ‘유사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서 획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의 자형과 논

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하지만 어느 것이 본의인가 하는 문제는 이 자형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의미들을 인지적인 순서로 배열해 보면 '들다'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以'의 의미간 파생 관계에 대한 羅端의 견해 또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以'가 기본적인 動詞의미 '引導'、'率領'에서 '帶着'、'拿'같은 뜻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갑골문 자형이 보여주는 모습 뿐 만 아니라, 甲骨文과 金文에 사용된 예를 볼 때, 移動을 포함하지 않는 動詞의미인 '帶着'、'拿'의 賓語는 모두 갑골문 자형과 합치되는 具體的 事物인데 비해 '引導'、'率領'의 賓語는 모두 사람으로서 자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羅端이 언급한 순서대로 의미가 파생되었다기보다, 오히려 '帶着'、'拿'에서 '引導'、'率領'으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羅端(2009)이 파생순서의 증거로 제시한 "以의 '引導'、'率領'의미가 이미 商代와 西周初期 甲骨文에 보이는데, '携帶'의미는 西周末期에나 나타난다"는 견해는 아마 '出土文獻'의 특성상 참고할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以'의 甲骨文 卜, 𠄎는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𠄎는 이 자형에서 사람 부분을 생략한 簡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자형 풀이에 근거하여 '以'의 本義는 '들다(提挈, 携帶)'인 動詞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2 파생의미와 용법

甲骨文과 金文에 보이는 '以'의 파생의미와 용법은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⁹⁾ :

9) 武振玉(2005:6-8)은 "金文 속의 以는 動詞, 介詞, 連詞의 세 가지 用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用字에 있어서 動詞用法은 以字만 사용하고, 介詞와 連詞用法은 주로 以를 쓰고, 때때로 𠄎를 쓴다고 보았으며; 時間上으로 볼 때, 以는 各 時期마다 보이지만 𠄎는 주로 春秋時期에 보인다고 하였다.

3.2.1 보내다, 바치다 (動詞)

郭錫良(1998:1)은 “위로 물품을 바치거나 제사 대상에게 물품을 供奉함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다가 ‘보내다’의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보내다’는 바로 ‘가져오다’ 또는 ‘가져가다’의 뜻이며 후대의 ‘바치다’ 혹은 ‘올리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갑골문을 통해 검증해 보면 郭錫良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예문에 보이는 ‘以’는 확실히 ‘바치다’ 또는 ‘올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 貞：有來自南以龜？不其南以？《合7076正》
점쳐 묻는다: 南으로부터 (누가) 와서 龜를 바칠까요? 南으로부터 바치지 않을 까요?
- (2) 辛未卜，永貞，追以牛。《合8970》
신미일에 점쳐 永이 묻는다: 追가 소를 바칠까요?
- (3) 戊辰卜，雀以象？ / 戊辰卜，雀不其以象？《合8984》
무진일에 점쳐 묻는다: 雀이 코끼리를 바칠까요? / 무진일에 점쳐 묻는다: 雀이 코끼리를 바치지 않을까요?
- (4) 庚寅貞：王米于罔以祖乙。《屯936》¹⁰⁾
경인일에 묻는다: 罔에서 米제를 지내는데 祖乙에게 바칠까요?

(1)의 ‘以’를 胡厚宣은 ‘致’로 풀이하였지만, 결국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의 (2)와 (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屯936》의 ‘以’는 《甲骨金文字典》과 羅端(2009)은 모두 祭名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따로 제사동사의 의미를 설정하지 않고 郭錫良(1998)의 해석처럼 ‘조상에게 禮品을 奉公하다’는 뜻의 ‘보내다’ 혹은 ‘올리다’의 의미로 보아도 문맥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사동사 자체도 결국은 조상과 같은 제사대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4)의 경우 아래의 복사와 비교해 보면 ‘以’를 일반적인 ‘올리다’의 뜻으로 보

10) 《粹227》와 동일 복사.

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乙未貞：王米，惟父丁以于罔。《合32024》

을미일에 묻는다: 왕이 米제를 지내는데 罔에서 父丁에게 올릴까요?

이 복사에서 '父丁'이 占卜의 초점이 되는데, '米'제에서 '올리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나타낸다.

3.2.2 초래하다 (動詞)

'以'의 '보내다'(帶來帶去)의 의미가 확장되어 抽象的 概念을 표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갑골문에 그 예가 보인다.

(5) 婦好孕弗以婦囚。《合10136》

부호가 회임하였는데 부호가 (이 회임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는 않겠지요?

(6) 往撻以雨。《合34182》

撻로 가면 비가 오게 될까요?

이 갑골문 속의 '婦囚'와 '雨'는 모두 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行爲가 초래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보내다'나 '올리다'는 의미의 '以' 뒤에 나오는 賓語 보다 抽象性이 더 강하다. 아래의 卜辭에 보이는 '以'를 徐仲舒는 《甲骨文字典》에서 '及'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초래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癸巳卜，往伐以雨。《南明429》

계사일에 점친다: 가서 정벌하면 비가 올까요?

3.2.3 거느리다 (動詞)

羅端(2009)은 아래 <白懋父簋>와 <小子淶卣>>의 ‘以’가 이미 虛化의 傾向을 보이며 ‘거느리다’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의미는 아직 개사화되지 않고 동사로 쓰인 것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도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 (7) 白懋父以殷八師征東夷。〈白懋父簋〉 [西周初]
 白懋父가 殷八師를 이끌고 東夷를 정벌하였다.
 (8) 子令小子淶先以人于董。〈小子淶卣〉 [西周初]¹¹⁾
 자가 小子淶를 시켜 먼저 사람을 이끌고 董에 가게 했다.

그런데 甲骨文 속에도 위의 西周初期 金文에 보이는 구조와 유사한 문장이 보인다 :

- (9) 丁未卜, 爭貞: 勿令畢以衆伐邛? 《合26》
 丁未일에 점쳐 爭이 묻는다: 畢을 시켜 衆인을 이끌고 邛을 치게 하지 말까요?
 (10) 丁未卜, 貞: 惟亞以衆人步? 十二月。《合35》
 丁未일에 점쳐 묻는다: 亞가 衆人을 이끌고 갈까요? 十二月
 (11) 丁未卜, 夫貞: 勿令卓以衆伐呂? 《粹1082》
 丁未일에 점쳐 夫이 묻는다: 卓을 시켜 衆인을 이끌고 呂를 치게 하지 말까요?
 (12) 師般以人于北奠次? 《合32277》
 師般이 사람을 이끌고 북쪽 변방에 가서 주둔케 할까요?

이 卜辭들 중 ‘以’의 賓語는 이미 具體的 事物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복사의 ‘以’는 ‘거느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9)~(12)

11) 羅端(2009)은 이 기물의 시기를 西周初로 보았지만, 일반적으로는 商末 帝乙시기의 것으로 본다. 본문에서 인용한 것처럼 갑골문에도 이 기물 속의 ‘以’와 같은 용법이 보인다.

에서 보이듯이 甲骨文 속 動詞 '以'의 통사구조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하여 連動文이 출현하였고 '以'의 虛化도 시작되었다. 郭錫良(1988)은 “‘以’字 구조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動詞의 뒤에 출현하였는데, 이는 ‘以’의 의미가 虛化를 촉진 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라 하였는데, 위의 예문들은 모두 連動文에서 다른 動詞가 '以'의 뒤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동문에서 앞의 동사가 먼저 虛化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위에서 살펴본 동사 의미항목 간의 파생순서에 대하여 郭錫良(1998)은 ‘들다>가지다, 거느리다>보내다’의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는데, 여기에 빠진 ‘초래하다’는 추상화된 정도로 보아 가장 뒤에 파생되었을 것이다.

3.2.4 동반(介詞)

羅端(2009:233)은 서주초기의 금문에서 ‘거느리다’의미의 동사가 품사변화를 통하여 개사로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羅端이 든 예는 다음과 같다:

- 13) 奄以乃弟用夙夕鬻享。〈雁公鼎〉 [西周初]
 奄이여! 너의 동생과 함께 (이 정)으로 아침과 저녁에 鬻享하거라.

羅端은 13)에서 부사어 수식구가 이미 동사구에서 개사구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羅端(2009:233)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중국어 개사는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통시적 변화 속에서 부사어 수식구를 거쳐 왔다’는 Whitman(2000) 혹은 Whitman & Paul(2005)의 관점과 일치한다. 동사에서 개사로 재분석되었는데 구조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단지 수식구의 문법표지만 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예는 같은 시기의 금문에 자주 나타난다.

- 14) 命其永以多友簋飩。〈命簋〉 [西周初]
 (이 사람에게) 영원히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신에게) 簋飩하게 명하다.

- 15) 王以侯納于寢。〈麥方尊〉〔西周初〕
왕이 후와 함께 처소에 들다.

3.2.5 名詞 接續 (接續詞)

‘以’가 명사를 연결하는 병렬접속사로 쓰인 예는 서주초기부터 출현한다.¹²⁾ 그런데 이 병렬접속사와 앞의 동반개사는 사실 현대 중국어에서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언어보편적으로 with>and 의 현상이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들은 ‘以’가 병렬접속사로 쓰인 것이다.

- 16) 今我佳命汝二人兗眾矢奭左右于乃寮曰乃友事。〈作冊令方彝〉〔西周初〕昭王
지금 내가 너희 두 사람, 兗과 矢가 속히 나의 寮와 나의 友의 일을 돕게 명한다.
- 17) 賜汝井寓籛田于駟以厥臣妾。〈大克鼎〉〔西周末〕
(내가) 너에게 駟지역의 井籛田과 그곳의 臣妾을 하사한다.
- 18) 走父以其子子孫孫寶用。〈食仲走父鬲〉〔西周末〕
走父와 그의 자손들이 (이 기물을)아껴 사용하여라.

위의 16)에서 ‘汝二人’과 ‘兗眾矢’이 동격인데 ‘兗’과 ‘矢’을 연결하는 병렬접속사는 ‘眾’을 쓰고, 뒤의 ‘乃寮’와 ‘乃友事’를 연결하는 병렬접속사는 ‘曰’를 사용하였다.

3.2.6 受事 (介詞)

羅端(2009:235)은 ‘以’가 개사로 허화된 후로 나타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주로 급여동사류의 쌍빈어문에서 직접빈어를 이끄는 것이라 하였는데 아래의

12) 羅端(2009:238-239)은 ‘以’가 병렬접속사로 쓰인 예는 서주말기 금문에서 새로 나타난 것이라 보았다.

명문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 21) 武王則令周公舍寓以五十頌處。〈興鐘〉 [西周中]
 무왕이 周公에게 寓에세 五十頌이 있는 居處를 주게 명령하였다.

21)에서 '以'의 뒤에 오는 '五十頌處'가 직접빈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동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

- 22) 衛以邦君厲告于井白,白邑父,定白,僚白,白俗父曰… 〈五祀衛鼎〉 [西周中]
 衛가 邦君厲를 井白, 白邑父, 定白, 僚白, 白俗父 에게 …라 말하였다.
 23) 余以邑訊有司。〈六年召白虎簋〉 [西周末]
 내가 有司에게 邑의 일을 알렸다.

22)에서는 '邦君厲'가 직접빈어인데 동사 '告'의 앞에 오며, 개사 '以'가 이끌고 있고, 23)에서는 '以'가 이끄는 '邑'이 직접빈어이고 동사 '訊'의 앞에 온다. 어떤 경우에는 개사 '以'의 빈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 24) 唯三月丁卯,師旂衆僕不從王征于方雷,事厥友引以告于白懋父。〈師旂鼎〉 [西周中]
 三月 丁卯일에 師旂의 衆僕이 王을 따라서 方雷로 출정하지 않아서, 그의 친구 引을 보내서 (이 사실을) 白懋父에게 알렸다.
 25) 引以告中史書。〈師旂鼎〉
 引이 中史書에 (앞구절에서 언급한 일을) 알렸다.

24)와 25)는 동사 '告'의 앞에 '以+ 직접빈어'가 와야 하는데, 빈어 없이 '以'만 출현하고 있다. '以'가 이끄는 빈어는 앞 구절이거나 앞에서 언급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羅端(2009:238)은 '以'가 뚜렷한 명사(구)(overt NP) 없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의 구를 介詞懸空 (preposition stranding)

이라 하였다.

3.2.7 쓰다 (動詞)

《論語》의 다음 구절에서 ‘以’는 ‘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선진의 문헌에는 이와 같이 ‘以’가 ‘쓰다’의 의미로 사용한 예가 적지 않게 보인다.

- 25)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論語, 憲問》
환공이 여러 차례 제후를 규합하였지만 전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以’가 언제부터 ‘쓰다’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학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郭錫良(1988)은 殷商、西周時期에는 ‘以’가 ‘使用’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다고 하였다. 羅端(2009)도 春秋末期의 金文에서야 비로서 ‘使用’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와 달리 陳年福(2002)은 甲骨文 속에 이미 ‘使用’의 의미가 쓰였다고 하며, 다음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 丙以小宰? 《合29668》
貞: 僞, 以巫? / 貞: 僞, 弗其以巫? 《合946正》
貞: 吳弗其以王臣? 《合5567》

그러나 위의 卜辭 속 ‘以’를 반드시 ‘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바치다’는 의미로 보아도 문맥에 어긋나지 않고 갑골에 이미 많이 사용되는 ‘用’자가 있으며, 아래의 ‘以’와 ‘用’을 함께 쓴 卜辭에서보이듯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갑골문에서는 ‘以’가 ‘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 壬寅卜, 殼貞: 興方以姜, 用自上甲至下乙。《合270正》

壬寅일에 접처서 𣪗이 묻는다: 興方이 姜족을 바쳤는데, 上甲부터 下乙
까지(의 조상)에게 쓸까요?

羅端(2009:8)은 '以'가 '用具介詞'로 쓰인 것이 비교적 후대인데, 戰國時期의 '使用'의미의 動詞가 재분석을 거친 후에 비로소 介詞 의미의 '쓰다'가 나왔다고 보았다. 다음은 '以'가 '쓰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 26) 唯孚車不克以衣焚。〈多友鼎〉 [西周末]
노획한 수레를 쓸 수 없다면 모두 태워라.
27) 𣪗以匱以喜以樂嘉賓及我父兄。〈阼兒罇〉 [春秋]
내가 이 동기로 잔치를 벌여 嘉賓과 나의 父兄을 좋아하고 즐겁게 하리라.

26)과 27)에서 '以'는 모두 '사용하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26)은 수레를 사용하다는 의미로 27) 보다는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춘추시기로 와서 '用'의 의미 자체도 더욱 추상화되었고, 비슷한 구문에서 '以' 대신 '用'을 쓴 경우도 나타난다.

- 28) 用匱用喜用樂嘉賓及我朋友。〈齊陶氏鐘〉 [春秋末]
내가 이 동기로 잔치를 벌여 嘉賓과 나의 朋友를 좋아하고 즐겁게 하리라.

3.2.8 수혜자 (介詞)

'以'가 '~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수혜자를 표시하는 개사로 쓰인 예는 서주 말기의 금문에서부터 보인다.

- 29) 虢仲以王南征。〈虢仲盨蓋〉 郭錫良: 憑事(方式) [西周末]
虢仲이 국왕을 위하여 남쪽으로 정벌 갔다.

3.2.9 方向, 時間 (介詞)

서주 말기부터 ‘以’가 방향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개사로 쓰인 예가 보인다.

- 30) 眉自濳涉以南至于大沽一封。〈散氏盤〉 [西周末]
 眉는 濳에서 물을 건너 남쪽으로 大沽까지 封을 하나를 준다.
- 31) 己侯乍鑄壺使小臣以汲。〈己侯壺〉 [春秋初]
 己侯가 鑄壺를 만들었고 小臣을 汲에 보냈다.
- 32) 鄆孝子以庚寅之日命鑄飴鼎鬲。〈鄆孝子鼎〉 [戰國中]
 鄆孝子가 庚寅일에 飴鼎鬲을 주조하게 명하였다.

30)과 31)의 ‘以南’과 ‘以汲’은 모두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구이고, 32)의 ‘以庚寅之日’은 시간을 나타내는 개사구이다.

3.2.10 原因 (介詞)

후대 문헌의 ‘是以’와 같이 ‘以’가 원인을 표시하는 개사로 쓰인 예는 서주 말기에 보인다.

- (33) 丕顯子白, 壯武子戎工, 經雙四方, 搏伐玃狁于洛之陽, 折首五百, 執訊五十, 是呂先行。〈虢季子白盤〉 [西周末]
 크게 빛나는 子白은 군사행동에서 용맹하고 사망을 잘 다스린다.
 玃狁을 정벌하여 洛수의 북쪽에서 五百명의 머리를 자르고 五十명의 포로를 잡아, 이로써 前軍의 선구가 되었네.

3.2.11 順接 (接續詞)

‘以’가 두 동사의 사이에 위치하여 두 동작이 연이어 일어남을 나타내는 예는 서주 말기에 보인다.

- 34) 受冊佩以出。〈善夫山鼎〉〔西周末〕
책명을 받고 (이를)차고 나오다.

34)의 '以'는 동사 '佩'와 '出'의 동작이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연결해준다.

3.2.12 目的 (接續詞)

'以' 목적을 나타내는 연사로 쓰인 예는 문헌 속 고전 중국어에 많이 보이며, 현대 중국어에도 남아 있는데, 春秋 시기의 명문에 보인다.

- 35) 爲宗彝槃彝永寶用以降大福。〈宗婦見裙盤〉〔春秋〕
宗彝槃彝를 만들어 영원히 사용하는 것은 大福을 내려 받기 위함이라.

3.2.13 도구 (介詞)

문헌 속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以'의 용법이 바로 '도구'의미로 쓰이는 介詞인데 서주 말기에 보인다.

- 36) 余命汝御追于□汝以我車宕伐玃狁于高陵。〈不其簋蓋〉〔西周末〕
내가 너에게 □까지 추격하라고 명한다. 너는 우리 전차로 高陵에서 玃狁을 정벌하라.
- 37) 擇厥吉金以作厥元配季姜之祥器。〈陳逆簋〉〔戰國初〕
이 吉金을 택하여 이로써 元配 季姜의 祥器로 삼는다.
- 38) 已擇其吉金以作鑄缶以祭我皇祖。〈欒書缶〉〔戰國初〕
吉金을 택하여 缶를 주조하여 우리 皇祖를 제사지낸다.

3.2.14 使役 (動詞)

다음은 문헌에서 ‘以’가 ‘使’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 39) 洽向謂秦王曰:‘向欲以齊事王, 使攻宋也。’ 《戰國策, 秦策一》
 洽向이 秦王에게 말하길:‘제가 齊로 하여금 王을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를 도와), 宋을 공격하게하는 것입니다.’

39)의 ‘以’를 高誘의 注에서 ‘以猶使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예는 다른 문헌들에도 많이 보인다.

- 40) 管仲以其君霸, 晏子以其君顯。《孟子, 公孫丑上》
 管仲은 그의 임금의 霸자가 되게 하였고, 晏子는 그의 임금을 유명하게 하였다.
 41) 不以後人迷。《尚書, 周書, 君奭》
 후대의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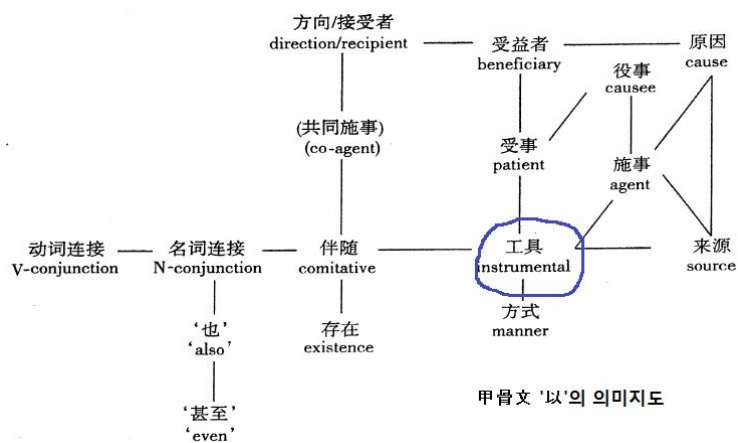
명문에서 ‘以’가 ‘使’의 의미로 쓰인 것은 서주 중기부터 보인다.

- 42) 萬年呂厥孫子寶用。〈封簋〉 [西周中]
 만년토록 자손들이 귀하게 사용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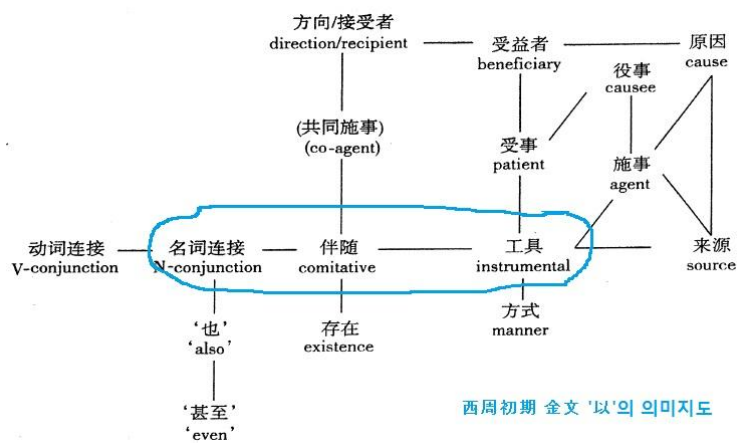
4. 甲骨文과 金文 속 ‘以’의 의미지도

위에서 살펴 본 갑골문과 금문 속에 보이는 ‘以’의 의미와 용법 가운데 ‘도구와 관련된’ 항목을 시기별로 개념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지도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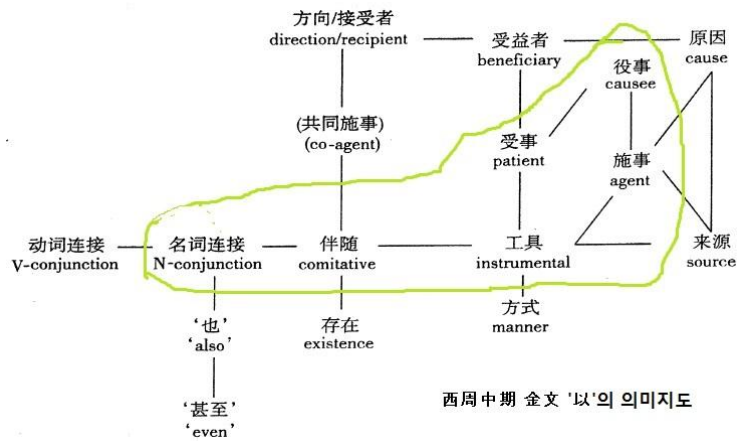
4.1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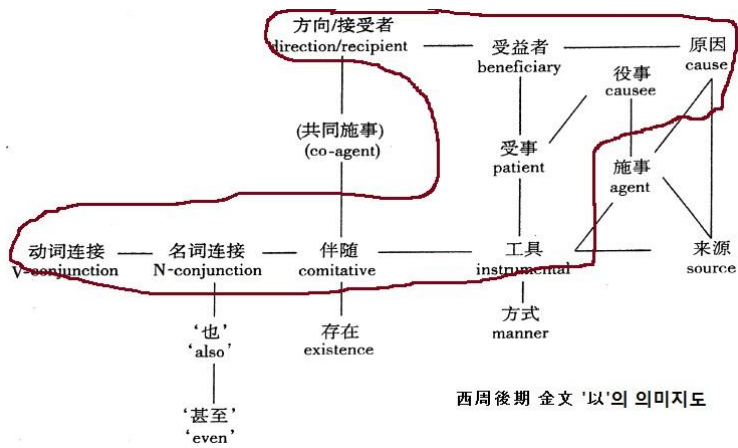
4.2 서주초기 금문



4.3 서주중기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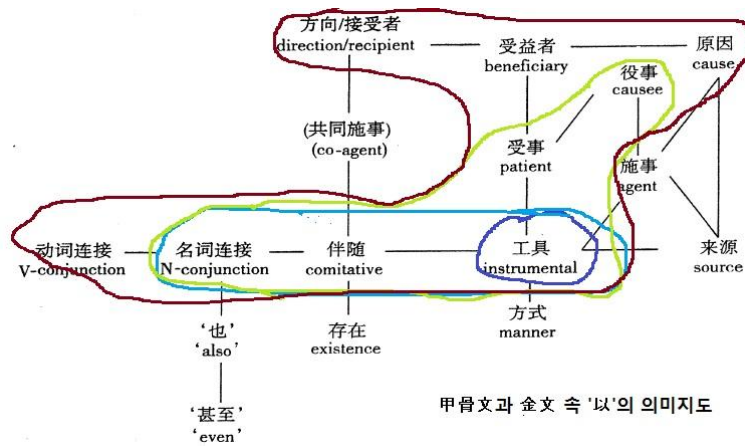


4.4 서주후기 금문



5. 나오기

앞 장의 각 시기별 '以'의 의미지도를 하나의 평면에 그리면 다음과 같은 지도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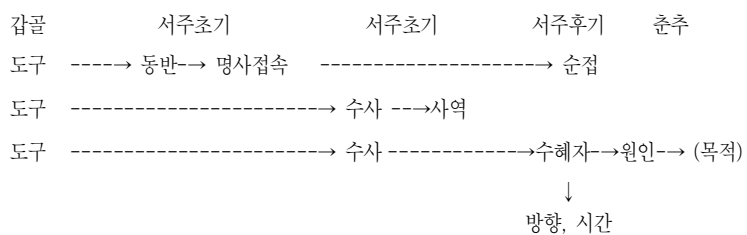
그런데 본문에서 고찰한 갑골문과 금문 속에서 도구와 관련된 '以'의 의미 항목과 용법들 가운데 春秋시기에 처음 출현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용법은 기존의 개념공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표시지 못하였다. '以'의 '목적' 표시 접속사 용법에 대하여는 '동사>개사>접속사'로 허화되었다는 설과 '동사>접속사'로 허화되었다는 설이 있는등, 아직 확정적이 증거가 없어 개념공간상에 추가하지 않았다. 13)

다음은 도구와 관련된 '以'의 의미와 용법들이 출현한 의미와 용법들을 품사와 시기별로 정리한 표이다.

13) 만약 개념공간상에 추가한다면 '원인'을 나타내는 개사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미	시기	동사	개사	접속사
본의	갑골문	들다/가지다		
파생의	갑골문	보내다/거느리다/초래하다		
	금문(서주초)		동반	名詞接續
	금문(서주중)	使役	受事	
	금문(서주말)	쓰다	受惠者/도구/方向, 時間/原因	順接
	금문(춘추)			目的

위의 의미항목과 용법들이 파생된 시기와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參考文獻

- 金祥恒(1962) 〈釋以〉《中國文字》第8冊
- 姜寶昌(1982) 〈卜辭虛詞試析〉《先秦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
- 楊五銘(1983) 〈西周金文連接詞‘以’‘用’‘于’釋例〉《古文字研究》第10輯
- 王貴民(1983) 〈‘以’非形新探-兼及有關古農具的文字語音問題〉《農業考古》第2期
- 趙誠(1986) 〈甲骨文虛詞探索〉《古文字研究》第15輯
- 裘錫圭(1992) 〈說‘以’〉《古文字論集》北京中華書局
- 郭錫良(1998) 〈介詞‘以’的起源和發展〉《古漢語研究》第1期
- 寧德厚(1999) 〈‘以’字的虛化及其動介用法辨析〉《曲靖師專學報》第2期
- 于智榮(2002) 〈上古典籍中表‘率領’諸義的‘以’字不是介詞〉《語文研究》第2期
- 陳年福(2002) 〈釋‘以’〉《古漢語研究》第4期
- 潘玉坤(2005) 〈試論西周銘文介詞‘于’‘以’的互補用法〉《徐州師範大學學報》第4期
- 武振玉(2005) 〈金文‘以’字用法初探〉《北方論叢》第3期
- 趙大明(2005) 〈左傳中率領義‘以’的語法化程度〉《中國語文》第3期
- 羅端(2009) 〈從甲骨, 金文中看‘以’語法化的過程〉《語法化與語法研究》(四) 商務印書館
- 覃覓(2010) 〈《詩經》‘以’字的用法考察〉《百色學院學報》第5期
- 潘秋平, 王毓淑(2011) 〈從語義地圖看《左傳》中的‘以’〉《語言學論叢》第43輯
- 백은희(2013) 〈선진시기 이중목적어 구문의 의미지도와 논항 배열 규칙〉《中國言語研究》第49輯
- 武振玉, 梁浩(2013) 〈殷周金文實詞虛化研究〉《求是學刊》第5期
- 王立穎(2014) 〈《左傳》‘以’字的用法考察〉《湖北函授大學學報》第13期
- 于蓓蓓(2008) 《古漢語‘所’‘以’和‘所以’的語法化過程考察》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 潘韜(2012) 《‘以’的虛化-由實詞到虛詞再到詞內成分》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

論文

- 朴正九(1997) 《漢語介詞研究》 臺灣 國立清華大學 博士學位論文
- 양만기(2005) 《甲骨文介詞研究-于, 在, 自, 從자의 용법을 중심으로》 全南大學
校博士學位論文
- 張 萍(2008) 《漢語‘以’字研究》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 孫詒讓(2000, 清) 《契文舉例》 北京圖書館出版社
- 管燮初(1953) 《殷墟甲骨刻辭的語法研究》 北京 中國科學院
- 陳夢家(1956) 《殷墟卜辭綜述》 北京 科學出版社
- 郭沫若(1978-82)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 方述鑫 외(1993) 《甲骨金文字典》 成都 巴蜀書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4) 《殷周金文集成》 北京 中華書局
- 于省吾(1996)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 陳年福(2001) 《甲骨文動詞詞匯研究》 成都 巴蜀書社
- 張亞初(2001) 《殷周金文集成引得》 北京 中華書局
- 華東師範大學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2001) 《金文引得》殷商西周卷 南寧 廣西
教育出版社
- 何金松(2004) 《漢字文化解讀》 湖北人民出版社
- 潘玉坤(2005) 《西周金文語序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石毓智(2006) 《語法化的動因與機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Abstract

A Semantic map of 'yi' in Oracle-bone & Bronze Inscriptions

Ryu, Dong-choon

This paper is the study aims to create a semantic map of 'YI(以)' associated with the tool that appears in the oracle bone and bronze inscriptions. For this purpose, first are those through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to determine and present the font and original meaning of 'YI(以)'. Next, examine the various meanings and usages of '以' associated with the tool presented in the study and they were arranged in a time sequence. Then painted each time the meaning and usage of '以' extracted from oracle bone and bronze inscriptions on the conceptual space that was defined by previous studies. Finally, it collected the semantic map of 'YI(以)' associated with the tool of all time on one conceptual space area. Through this map, we will know the relation between the expansion means and the use of the path between the various meaning and usage of 'YI(以)' associated with the tool.

Key words : semantic map, conceptual space, oracle bone inscriptions, bronze inscriptions, 'YI(以)'

투 고 일 : 2016. 1. 10. / 심 사 일 : 2016. 1. 15. ~ 2016. 2. 15. / 게재확정일 : 2016. 2. 16.